



보안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, 닉스테크

박은하 |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대리 eun@kisia.or.kr

국내에서 10년 넘게 보안시장을 지켜온 기업은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. 1995년 설립돼 올해로 창립 13년째를 맞는 닉스테크는 그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. 설립 당시부터 다양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면서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해진 통합 PC 보안 솔루션을 주도한 기업이죠. 최근에는 통합 PC 보안 솔루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보안 서비스, e-비즈니스, IT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.

닉스테크의 제품 라인업을 살펴보면, 통합 PC 보안 관리 솔루션 'Safe PC' 를 비롯해, 보안 USB 관리 솔루션 'Safe USB' 등이 있습니다. 특히, Safe USB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보안 USB 도입 의무화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솔루션입니다. 최근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내부정보유출이 화두가 되면서 닉스테크 역시 제품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죠.

닉스테크의 제품은 GS 인증, 국정원보안검토필, 신SW 대상, NEP 인증을 받았으며, 2001년 첫 선을 보인 이래 공공기관, 일반기업, 대학교, 금융기관 등 전 산업분야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. 닉스테크의 통합 PC 제품이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는 PC보안 기능을 비롯해, 내부정보유출방지 기능, 자산/통합 관리기능, 패치관리 기능이 적용돼 있고 여기에 노트북 반출입 통제기능, 프린트 보안기능, 외주인력 관리기능, PC 보안 자가진단 기능이 옵션으로 제공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들이 맞출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오는 2009년 하반기 코스닥 등록을 향해 뛰어다니고 있는 닉스테크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사로서 보안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들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요?**S**